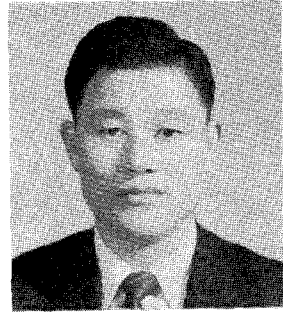


# 모든 양계정보자료가 수록된 잡지로 발전시켜 주기를

## 설 동 섭

가축위생연구소장  
전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관



**먼저** 양계인의 발전을 위하여 길잡이가 되어 온 「월간양계」지가 벌써 14돌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양계가 요람기를 막 벗어나는 1969년경에 양계인의 교육을 겸한 홍보잡지로 출간을 시작한 이래, 숭한 양계업계의 불경기를 겪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한양계협회가 이 「월간양계」지만은 계속해 왔다는 것은 그동안 이 양계지를 속간시키기 위하여 애써온 협회의 여러간부들의 분투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축산지로서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극히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양계인들의 수준이 높아진 덕도 있지만 이 잡지를 통하여 양계인들이 모든 닭사양기술, 종계 및 사료선택, 양계시설 및 기구의 선택, 질병치료제의 지식습득 등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광고를 통해 갖가지 양계인이 알고 싶은 정보도 상당히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잡지편집자체의 질적 향상에도 힘입은 바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가 「월간양계」를 볼 때마다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홍보자료가 수록되어 이 잡지만 보면 양계에 관한한 무엇이든지 지식을 얻고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잡지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종계사료, 약품, 기구 및 시설광고를 크게 낸 것에 한하여 알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월 게재해 준다면 대단히 독자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광고의 효과를 다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주소와 연락처, 간단한 취급 물품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조금도 광고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리스트에 게재하는 회사가 다소의 게재비를 내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필자가 근무하는 가축위생 분야를 예를 들어 몇가지 청을 드리면 양계인들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기 쉬운 것이 전염병 예방약 접종이다. 평상시에도 늘 해야하는 일하면서도 농장에서 별문제가 없으면 곧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예방약 접종인데 「월간양계」가 꼭 해주실 것을 믿으며 매월 잡지에다 적어도 광고와 맞먹는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예방약접종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뉴캐슬, 전염성후두기관염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약접종을 실시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그때

듣지 않은 양계인은 역시 소홀히 하기 때문에 양계지에서 반복적으로 간단하고 쉽도록, 또한 눈에 띄이게 홍보하면 예방접종에 훨씬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긴 글을 써서 홍보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 뻔히 아는 소리를 장황하게 써 놓아서 읽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만화식으로도 좋고 간단한 구조 조의 글도 좋고 눈에 띄이게 활자화해서 선전식으로 하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양계인은 양계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식으로 다소 인격을 무시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란계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육계 사육 농장에서는 여전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날이 곧 출하하는 날이란 소문이 자자 하다. 이것을 선도해서 예방접종을 충실히 하는 육계농장과 안하는 농장간에 소득이 판이하게 틀리는 내용을 취재해서 선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월간양계」가 해야 할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약접종의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현재 양계농가를 괴롭히는 전염병을 근절하는데 보다 앞장 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육계를 출하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도계장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이 모색될 것도 아울러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연구소가 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혈청검사도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방접종과 투약을 하면 위생비와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알려주고 참여하도록 선도하는 것만이 질병의 재난에서 양계인들을 사전에 구제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디 「월간양계」가 닭질병예방 및 방제에 유일한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창간 14돌의 기념을 축하한다.

## '83 추곡 수매 방침 결정

- 수매가격은 작년과 같은 55,970원

- 10월 2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현금수매

○정부는 10월 27일 금년산 추수 수매방침을 최종 확정, 수매가격은 작년과 같은 정곡 2등급 기준 80kg들이 가마당 55,970원으로 거치했으나, 수매량은 작년보다 100만섬 늘린 800만섬으로 결정하여 수매자금 8,463억원을 들여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에 700만섬, 나머지 100만섬은 내년 1월 30일까지 94일간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곡의 농민 수취가격은 벼로는 2등급 기준 54kg들이 가마당 27,230원이 됩니다.

이러한 금년산 추곡수매가격은 최근의 80kg 가마당 신품종 산지 쌀값인 50,000원선 보다는 약 5~6천원이 웃돌고 있는 수준입니다.